'의회권력' 보수진영으로 U턴

與집단탈당 예상속 원내1당 교체 초읽기

국회 운영위장·선거기호 1번도 한나라로

잔뜩 뜸을 들여온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분당급' 집단탈당이 이번주초 실행에 옮겨질 경우 차기 대선을 앞둔 17대 국회는 다수당 '바통 터치'를 통한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134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당은 '20명+α' 규모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127석의 한나라당에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넘겨주고 제2당으로 주저앉게 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진보진영으로 넘어갔던 '의회권력'이 근 3년만에 보수진영으로 U턴하면서 국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법안처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유동성이 생기게 되고, 이는 차기 대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2002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던 옛 집권 민주당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열린우리당-통합신당-민주당으로 3분되고, 한나라당은 '거야(巨野)'로 다시 한번 대선정국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10년간 놓쳤던 행정권력도 넘겨주느냐, 아니면 진보진영에 한번 더 행정권력 만큼은 위임할 것이냐는 이슈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원내 제1당의 뒤바뀜을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 당장 한나라당은 의석비율 변동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의 정수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집권 여당의 몫이었던 운영위원장 자리도 한나라당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장 내 좌석 배치 조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보통 제1당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관례에 따라 우리당이 현재 중앙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제2당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 자리를 한나라당을 위해 비워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새로운 국회 위원회 또는 특위 구성시는 물론이고 대정부질문 의원 수와 당 정책연구위원 배분 등에서도 한나라당에 최대 지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제1당인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법안과 개헌안 등은 수적 열세로 인해 국회 통과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게 된다.

새 교섭단체들의 경우 정당을 결성하면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게 될 뿐 아니라 국회 본청 사무실도 배정받게 된다.

국회운영 외적 사항으로는 선거 기호 '1번'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원내 1당에 기호 1번을 부여하는 선거법에 따라 당장 돌아오는 4.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한나라당이 1번, 우리당이 2번을 각각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영달 열린우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1> 통계활용 생활화 하자

돈되는 창업·소비 통계속에 다 있다

최근 '블루슈머(Bluesumer)'란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블루슈머'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경쟁자가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를 뜻한다.

통계청은 최근 6개의 '블루슈머' 집단을 선정·발표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 및 의식 변화를 읽어내면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출퇴근 시간이 긴 '이동족', 아침을 거르는 '아침사양족' 등을 거론하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이동족의 증가는 DMB TV, 휴대용 게임기, PMP 등 이동중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 20대 가운데 아침을 거르는 인구가 절반에 달하면서 간편한 먹거리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통계를 보면 지갑을 열 소비자가 보인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리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통계가 개인의 삶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의 보고'로 활용되면서 통계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공식통계는 총 736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8종(47.8%) 늘어난 것으로 통계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도 통계 생활화를 통한 실리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는 지역 내 인구나 물가 변동은 물론 서비스업·농림어업 동향 등 사회 전반의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합리적인 생활을 위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산업활동의 자료 분석을 통해 창업 여부를 검토하는가 하면 사망이나 암발생 통계 등을 살펴보고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등 일부 기업체나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통계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통계 활용도 아직도 미미

생활 밀착 '맞춤형 통계' 개발도 절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계활용도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위의 각종 통계를 활용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을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에는 지역 맞춤형 통계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자체별 상권이나 업황 분석 등 생활경제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실례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 동종업소의 수나 수요계층·업황 등을 분석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통계청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생활통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맞춤형 통계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통계청은 물론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통계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민주당發 통합신당론' 소멸

사수파 반대 당내 논의 중단

김효석 원내대표가 촉발시켰던 '민주당발 통합신당론'이 지난 2일 당내 논의에서 단호히 거부되면서 '찻잔속에 태풍'으로 소멸됐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계기로 민주당 내 신당파와 사수파의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의 균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민주당 내부의 반대 때문에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들이 제안한 동시 탈당 뒤 제 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하자는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졌지만, 민주당도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일 민주당이 통합논의를 중도개혁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논의하자고 결의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신당파의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효석 의원이 제시한 '통합신당론'의 봉합에는 성공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의원들이 대거 탈당, 신당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신당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효석, 이낙연, 신중식, 최인기 의원 등은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면서 통합신당 창당 분위기 확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與의원 22~24명 내일중 탈당

정성호의원 6번째 탈당선언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3일 여당 의원으로는 6번째로 탈당을 선언한데 이어, 김한길 의원을 중심으로 한 20명 이상의 집단 탈당도 이르면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새로운 모습을 해 보기 위해서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하얀 백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정 의원은 이미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과 함께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한길, 강봉균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당파들의 집단 탈당은 이르면 6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분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내 제1당은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당초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집중 마크로 탈당 규모는 22~24명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탈당파 의원들은 5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모임을 갖고 탈당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협의를 벌인다.

주승용 의원은 "5일은 시간상 어렵고 국회 운영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르면 6일께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지도부·개헌특위 초청

노대통령 내일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4일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김근태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개헌특위 유재건 위원장과 김영춘, 임종석 부위원장, 민병두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과 여당 의원간 회동은 지난달 11일 4년 연임제 개헌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당 지도부 및 고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약 한 달만이다.

노 대통령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헌 제안 이후 국회를 비롯한 여론 동향을 점검하고 발의 시점과 이후 절차 등과 관련해 폭넓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